

안 그래픽스 인쇄 · 사진 ·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ahngraphix@gmail.com	구나영 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새로이 65세 되시는 분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구나영 아가다 678-665-4228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Agency 자동차 · 집 · 사업체 · 중업원 상해 보험 강인옥 베드로 404-644-8658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 냉 동 에어컨 · 히팅 ·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AAA Insurance 이창호 보험(바오로) 자동차/주택/메디케어 678-910-0884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	SMILE 1 DENTAL GROUP 스마일원치과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Brighter Smiles 잔스크릭 치과 www.brightsmlsmd.com 470-719-0213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미소 치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배용자 루시아 보험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ALFONE LIFE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미래의 대비와 준비 / 학자금 상속 / 은퇴 / 생명보험 / IRA 장기요양보험 / 오바마의료보험 오선주테레사 보험 714-579-5422	명품중식 레스토랑 만 천 흥 신자분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JOYNUS CARE 간병인 수시 모집 김경숙 소화테레사 404-457-6703 3120 Crossing Park NW, Norcross, GA 30071 / info@joynuscare.com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더조은 척추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정토니 안토니오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kw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Wepandot! 로사리오 평생대학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찾아보세요! •정경다리 회원 모집합니다. (차세대 임원 및 봉사인원 필요합니다) •강사문의 환영합니다. 은전 베네딕토 404-308-0322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	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Pinem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 토지 부동산 전문인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오민환 파비아노 10820 Abbotts Bridge Rd, #240	주년의향께 항상기뻐하십시오 거둬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모든사람에게 보이십시오 4월 4주 주보 광고 문의 kmccga.jubo@gmail.com	부동산 전문인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Fairway Home Loan *주택융자 *상업융자 최윤석 융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GIFTS GOLD · CROSS · REPAIRS · 십자가, 성상 · 성화, 묵주, 책 · 신발수선 · 금, 은, 주문제작 · 타·서초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TOP 조정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회답송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 이 - 들의 땅에서 걸 으리 - 라.	주보 광고 문의 kmccga.jubo@gmail.com		

순교자 주보



에블렌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4년 2월 25일

NO.2240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kmccga.pastor@gmail.com | 부주임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그리스도의 변모>, 라파엘로 산치오 작

사순 제 2주일

성 가
입당: 122 봉헌: 220,513 성체: 190, 186 파견: 72
제 1 독서 창세기 22,1-2.9.10-13.15-18 우리 창조 아브라함의 제사.
제 2 독서 로마서 8,31-34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십니다.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 음 마르코 9,2-10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르코 9,2-10)

이들 안에서

배영길 베드로 신부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함께 살아갈 사람들.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나와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

이들 안에서
하늘의 마음을 봅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주는 하늘을 만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사악의 희생 제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사악을 바친 아브라함의 모습은 모든 이의 속죄를 위하여 번제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신 하느님의 예표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됩니다. 당시 유대 민족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자신의 생명은 아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지속됩니다. 아브라함이 백 살이 되어서야 얻은 이사악은 그에게 있어서 새롭게 얻은 생명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생명이고, 자신을 계속 살아 있게 할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바치는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을 멈추고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친아드님”이자 “사랑하는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고, 이는 당신 자신을 내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니, 서로가 서로에게 중심이 되고 다른 위격이 자신보다 더 중요해지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생각할 때, 사실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자신은 아무 위험 없이 몰래 숨어 계시면서 대신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는 무자비하시고 비겁하신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당신과 똑같은,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과 함께 몸소 고통을 겪으시고 희생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 스스로 직접 희생하셨다는 것이 다른 종교의 신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입니다. 상처 하나 없이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상처투성이의 하느님이십니다. 교회도 아버지를 닮아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길에서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정훈 바오로 신부)

쳐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했지만 보통 14처로 이뤄졌습니다. 이때가 14세기 쯤이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황청에 청원을 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기도하는 이들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또 큰 도시에 가서 순례하지 않아도 가까운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전대사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십자가의 길을 오늘날처럼 14처로 고정하면서 교구 직권자(교구장 주교나 또는 교구장에게서 위임을 받은 책임자, 예컨대 총대리)의 허가를 얻어 합당한 방법으로 세운 14처가 있는 성당이나 경당, 순례지 등지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통해 얻는 전대사

그러면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기도를 통해 전대사를 얻으려면 대사를 얻는 데 필요한 일반적 조건(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을 이행하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에 따르는 몇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우선, 십자가의 길 14처가 적법하게 세워진 곳이어야 합니다. 봉헌식을 한 성당에 있는 14처는 적법하게 세워진 14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싶다고 개인이 임의로 14처를 세우는 것은 적법한 14처라고 볼 수 없겠지요.

다음으로, 14처가 있어야 합니다. 14처는 성화나 조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십자가만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또 14처 전체를 중단하지 않고 순서대로 바쳐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몸소 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바칠 때는 각 처로 이동하면서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한꺼번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경우에는 주송자만 이동하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바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14처가 있는 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병자들이나 감옥에 갇힌 수인들은 전대사를 받을 길이 없을까요. 이들의 경우 적어도 30분 이상 예수님 수난과 죽음에 관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의 형태와 의미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가 십자가의 길을 14처로 고정한 이후 14처 십자가의 길 기도는 오늘날까지 가장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기도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이 14처는 ① 사형선고 받음 ② 십자가를 지심 ③ 첫 번째 넘어짐 ④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심 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짐 ⑥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심 ⑦ 두 번째 넘어짐 ⑧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 ⑨ 세 번째 넘어짐 ⑩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초와 쓸개를 마시게 함 ⑪ 십자가에 못박히심 ⑫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 ⑬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 ⑭ 무덤에 묻히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 부활을 포함시켜 십자가의 길 기도를 15처로 바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점에서 15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반면에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이 또한 부활하신 장소이기에 14처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까지 묵상할 수 있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4처로 바쳐야 하느냐 15처로 바쳐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신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 마침내 그곳에서 못박혀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는 비록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짧은 여정이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를 집약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한 분이 대역죄인으로 낙인찍히고, 놀라운 표징들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선포하시던 분이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무참히 쓰러지십니다. 예수님 공생활에 비춰보면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기막힌 역설이요 반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역설의 길은 마침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면서 묵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러한 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네 인생 살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봅시다.



<출처:가톨릭 길라잡이-굿뉴스>

십자가의 길 기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요?

성당 안에 들어가면 보통 양쪽 벽면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 십자가에 못박히는 모습,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 등이 조각이나 그림, 또는 색유리화 등으로 묘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14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를 십자가의 길 14처라고 합니다. 신자들은 이 14처를 한 처씩 찾아 그 아래에서 기도를 바치는데 이 기도를 십자가의 길 기도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바치는 기도여서 신자들이 특히 사순 시기에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많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은 사순 시기에만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 유래와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 유래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바위로 깎아 만든 무덤, 곧 돌무덤에 묻히셨다고 전합니다(루카 23,53).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면서 예수님 무덤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으로 그리스도교가 자유를 얻게 되자 예수님 무덤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황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는 예수님 무덤을 찾는 데 열성적이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헬레나 성녀는 꿈에 예수님 무덤이 땅 속에 묻혀 있는데 그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다는 말을 듣고는 무덤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 성당이 예루살렘의 예수님 무덤 성당입니다.

예수님 무덤 자리에 성당이 세워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무덤 성당을 찾아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기에 예수님 무덤 성당은 특히 참회하는 고행자들의 순례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사제들이 중죄를 지은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지순례, 특히 예수님 수난과 관련된 장소들을 순례하라는 보속을 준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순례의 중심은 예수님 무덤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은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이기도 하니깐요. 예루살렘을 순례해 예수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은총의 체험이었지만 또한 성지를 순례하고 온 이들은 전대사를 받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발달한 것도 아닌 중세기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는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고 전대사를 받는다는 것은 공평치 못해 보였지요. 그래서 일부 수도회들을 비롯해서 교회 단체들은 유럽 여러 도시에 예루살렘 예수님 무덤 성당을 본판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는 조각이나 그림 등으로 예수님의 수난과 관련된 장소들을 표시했지요. 이제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성당들이 있는 도시들로 가셔도 예수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영적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난한 농부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각 성당마다 예수님 수난의 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당 안에 나무 십자가로 수난과 관련된 주요한 지점(처)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YOUTH GROUP 피정

2월 16일(금)- 18일(일) KMCC & SAKC 유스그룹 학생들이 Glisson Camp and Retreat Center로 겨울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매일말씀묵상 기도봉헌 접수

청년미사후 식사봉사

예비 신자 식사

망치회 김밥 판매



Forsyth 구역미사



교리반 수업 모습



청년 견진 교리반



예비자 교구 선발식



청년 미사 후 식사

